

사고 헬기 결함 4건 발견돼 지난달 정비 받았다

광주 도심 헬기 추락...사고 원인은

돌풍·번개 없고 가시거리 10km로 기상상태 나쁘지 않아

조종사 2명 20년 이상 베테랑...조종 과실 가능성 낮은 듯

공군측 헬기 저공비행 주문에 사고 대처할 시간도 부족

광주 수완지구에서 추락한 헬기의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헬기에서 4가지 기체 결함이 확인돼 지난달 마지막 정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상 악화 등 사고에 영향을 준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군 제 1 전투비행단이 평소 도심을 지나는 헬기에 대해 700피트(210m) 이하로 고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제 방식도 조종사의 사고 대처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지난달 23일 연료이송 펌프 작동 램프 고장 등 4가지 기체 결함이 확인돼 이틀간 김포공항 내 삼성테크원에서 수리를 받았다. 삼성테크원은 강원소방본부 헬기의 전속 외주정비업체로 결함이 확인된 ▲연료이송펌프 작동 램프 고장 ▲탑승자 전동식 발판 고장 ▲랜딩 헤드 라이트 고장 ▲보조 유압 펌프 스위치 고장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수리를 진행했다고 강원소방본부는 전했다. 현재 기체 결함 수리와 사고

발생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헬기 조종사 등 복수의 항공전문가들도 이날 추락한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헬기의 사고 원인에 대해 ▲추락 당시 영상 ▲교신 내용 ▲조종사 2명의 경력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체 결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헬기 추락 사고가 인위적 과실로 인한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사고 헬기를 조종했던 정성철(52) 소방경 등 조종사 2명은 모두 군 경력을 포함 20년 이상의 베테랑 헬기 조종사인데다 조종사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2인 이상의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 추락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 헬기가 사고 순간 지면과 수직에 가깝게 추락한 점도 기체 결함 쪽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마치 사고 헬기가 동력을 잃고 맥없이 추락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운항을 위협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점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오전 10~11시 사이 광주 광산구에는 초속 0.9m의 풍속에 돌풍이나 번개 등 악기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가시거리는 10km 였다.

특히 광주 인퐁에서 수년째 헬기를 조종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광주 도심 관제를 맡고 있는 공군 제 1 전투비행단의 관제 방식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군 측이 도심을 지나는 헬기에 낮은 고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 결과적으로 긴급 상황 시 조종사들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조종사들은 “관제를 맡고 있는 공군 측이 초 저고도 비행을 하는 공군 훈련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항상 헬기를 700피트(210m) 아래로 고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공군 측 말로는 정부(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이리다 사고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도심을 지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군 측은 “헬기에 저고도 비행을 요구한 관제방식과 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날 교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학교 뒷편 도로에서 추락한 헬기의 파편이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식당 유리창을 깬 모습. 사고 당시 식당 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1년 佛 유로콥터사 제작 인명구조용 중형헬기...강풍에 약한 단점

사고 헬기는

17일 광주 도심에서 추락한 헬기는 프랑스 유로콥터사(社)에서 제작한 인명구조용 ‘도핀’(Dauphin·AS365-N3)이다. 대당 가격은 78억 원이며, 지난 2001년 8월 31일 프랑스·독일의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에서 생산됐다.

이 헬기는 중형헬기로 인명구조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항공방제·지휘·정찰·활영 등에 주로 이용된다. 날렵한 생김새에 기동력이 탁월해 구조용으로는 적합

하지만 강한 바람엔 약한 단점이 있다. 최대탑승인원은 14명. 항속거리는 860km(3시간30분)이다.

기체 길이는 11.63m·너비 2.03m·높이 3.81m다. 현재 전국소방본부엔 모두 27대의 헬기가 있으며 이중 사고 기종은 모두 8대(경기·강원·경북·경남소방본부 등).

현재 광주시소방본부는 일본 가와사키사(社)에서 제작한 BK117-B2 1대를, 전남 소방본부는 일본 가와사키 BK117-B2(1대)와 미국 벨사 BELL 214B-1(1대) 등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 사고 헬기 제원	
	
제작사	프랑스 유로콥터사 인명구조용 ‘도핀’
가격	78억 원
너비×길이×높이(m)	2.03×11.63×3.81
항속거리	860km(3시간 30분)
최대탑승인원	14명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소방헬기 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사고 헬기를 생산한 프랑스의 유로콥터 제품은 전국 시도에 모두 9대가 있다. 경기·경북·경남소방본부는 사고헬기와 같은 AS365-N3 기종을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도입시기는 추락한 강원 소방헬기가 2001년 8월로 가장 빠르다. 4개월 후 경기도에서 같은 기종을 도입했고, 경북(2006.2)과 경남(2007.2)이 뒤를 이었다. . /연합뉴스

사고 헬기 동일·유사 기종 7대 운항 잠정중단

광주 도심에서 17일 오전 추락해 5명의 사망자를 낸 헬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종의 헬기 7대의 운항이 잠정 중지됐다. 소방방재청은 시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헬기 중 사고헬기와 동일 기종 및 유사 기종에 대해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

에서 “일단 유사기종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항이 중단된 기종은 사고헬기와 동일한 AS365-N3를 비롯해 제조업체가 같은 AS365-N2 기종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두 기종을 합쳐 7대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2000년 이전에 도입됐다.

“버스 기다리는데 ‘핑’...파편맞고 쓰러져 헬기 추락한 줄도 몰라”

부상 여고생 다니는 성덕고 서민호 교감이 전하는 사고 순간

“제자가 (교실마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헬기가 추락하면서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17일 광주 K병원에서 만난 광주 성덕고 서민호(48) 교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헬기(도핀·Dauphin·AS365-N3) 추락사고로 왼쪽 팔·정강이에 부상을 입은 뒤 K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제자 박모(19·성덕고 3년)양을 만나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박양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한 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게 서 교감의 전언이다.

이후 박양은 헬기가 추락하면서 튼 파편에 팔·다리를 맞아 쓰러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쓰러졌다. 박양이 홀로 서 있던 시내버스 정류장은 헬기 추락지점과 직선거리로 불과 4~5m 안팎.

만약 시내버스 정류장에 유리 부스가 없었다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쓰러진 박양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K병원으로 후송됐다.

박양은 현재 K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

서 교감은 “제자가 헬기가 추락한 줄도 몰랐다고 말한 것을 보니, 갑작스러운 추락사고에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것 같다”며 “(제자가)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현재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학생의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언론에서도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밀린 월세 재촉에 격분...집주인 흥기 위험한 세입자 경찰서행

○...밀린 월세를 달라고 재촉하는 집주인을 쫓아가 흥기로 위협한 40대 세입자가 경찰서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7)씨는 지난 16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능성동 박모(여·69)씨의 2층 주택에 세들어 살던 중 집주인이 심한 욕설을 하

면서 밀린 월세 23만 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쫓아가 흥기로 위협한 혐의.

○...정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에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일을 하지 못했다. 집주인이 30분 이상 모욕적인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2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2억원 정도
- 급매: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투자 가치 좋습니다

H. 010 - 3605 - 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